

# 가열된 어린이책 시장의 빛과 그늘

신형진 | 푸른책들 대표

최근 우리 출판계가 집중적으로 관심 쏟고 있는 분야를 들자면 단연 아동도서가 맨 앞자리에 놓일 만하다. 물론 어느 특정 분야에 유행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일은 우리 출판계에서 흔한 현상 가운데 하나다. 대개 유행적 현상들이 상업적 성공의 전범을 따라 모방하고 베끼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끓어오르지만, 최근 일고 있는 아동도서에 대한 급격하고도 집중적인 관심은 그와 다른 맥락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끈다.

우리 출판계는 자본적 토대가 허약한 데 대한 불안과 끝이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2~3년간 신간 발행부수와 종수가 대폭 감소한 것만 봐도 출판계의 어려움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도 발행부수 면에서 아동도서 분야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출판사들이 불황극복의 한 방법으로 출판 영역을 아동도서로 확대하고 있다. 그 실례로 지금껏 아동도서를 출판한 적이 전혀 없거나 공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그에 대한 무관심을 표출하던 여러 출판사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순발력 있게 아동도서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동도서 매출이 성인도서 매출

을 능가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다는 소문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아동도서 출판의 변화는 일견 급격한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아래에 깊고도 느린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맞물린 의도적인 책 읽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화읽는어른' 모임이나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같은 시민 단체와 독서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이 아동들의 독서환경 조성에 기폭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동안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좋은 아동도서를 소신 있게 출간해온 여러 출판사의 노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아동도서들이 출간돼, 독자들은 책들의 홍수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불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절실하게 떠오른 아동도서 출판이 '남들 다 하니깐, 잘 팔린다고 하니깐 일단 뛰어들고 보자' 혹은 '무조건 많이, 남보다 더 빨리 내보자'는 식의 안이한 발상에 잠식당하고 만 것이다. 국제도서전에서 어느 출판사가 외국 그림책 타이틀을 싹쓸이했다느니, 창작동화 출간의 붐에 따라 국내 동화작가들이 입도선매식의 계약에 휘둘리고 있다느니 하는 소문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독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해, 어떤 책이 낼 만한 것이며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신인화가를 발굴해 좋은 그림책을 펴내려 애쓰거나 국내 창작동화만을 전문적으로 펴내는 출판사들이 보여주는 좀더 바람직한 시도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급격한 소용돌이 아래의 깊고도 느린 흐름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몰아가려 하고 있지 않은가.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중로구 시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허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